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Official Document Literacy and Archival Literacy

홍소람 (Soram Hong)**
장우권 (Woo-Kwon Chang)***

초 록

이 연구는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대상과 범주를 공문서 리터러시와 연결시키고 리터러시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증명하여 기록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헌연구 및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진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진 집단인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대부분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 및 기댓값(중요도)이 높았다. 둘째, 모든 요인에서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보다 기댓값(중요도)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모든 상관값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표본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소통'과 '분석적 개념'(0.626) 간의 상관관계가, 대학생 표본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소통'과 '분석적 개념'(0.561) 간의 상관관계가, 응답자 전체로는 '시민으로서의 소통'과 '분석적 개념'(0.563)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진 집단일수록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동질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study seeks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extending the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of records to the public area. For the purpose, the study links the target and scope of archival literacy with official document literacy and prov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ments of archival literacy and official public literacy. The literature reviews and survey comparing public officers and undergraduates a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 public officers with official document literacy showed higher the degree of actual use and awareness than undergraduates; awareness was higher than the degree of actual use in all questions and factors; all correlation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In the public officers group, th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s public officers' and 'analytical concepts' (0.626) was the highest, In the undergraduates group, th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s the public' and 'analytical concepts' (0.561) was the highest, As a whole, the respondents show the highest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s the public' and 'analytical concepts' (0.563); As a result, the group with official document literacy is more aware of the homogeneity between official document literacy and archival literacy.

키워드: 공문서 리터러시, 기록정보 리터러시, 공공 리터러시
official document literacy, archival literacy, public literacy

---

* 이 글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2017년 8월)을 요약・수정・보완한 것으로,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수행되었음(IRB No. 1040198-170320-HR-016-05).
**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학 석사(tower_sun@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17년 8월 20일 ■ 최초심사일자 : 2017년 8월 31일 ■ 게재확정일자 : 2017년 9월 13일
■ 정보관리학회지, 34(3), 125-150, 2017. 〔http://dx.doi.org/10.3743/KOSIM.2017.34.3.125〕

www.kci.go.kr

1. 서 론

1.1 연구 목적

‘갈등(conflict)’은 인간의 탄생과 함께 존재해오는 불가피한 특성과도 같은 것으로,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갈등은 우호적이지는 않을지언정 집단 간 불평등 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투쟁적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형성을 촉발시키므로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Giddens & Sutton, 2015, pp. 412-413). 하지만 현대 사회의 갈등은 건설적인 논쟁을 통한 관계와 상호작용의 지속이라기보다 혐오를 재생산하여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리터러시(literacy)[1]의 개념은 ‘혐오의 시대’를 타파할 대안의 기반이 된다. 리터러시는 문맹에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문식(文識)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확장된 능력을 의미한다. 리터러시는 매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 정보를 기록하여 사실을 반영하는 매개는 기록(record)의 근본적 가치인 증거적 가치와 상통하기에, 기록과 리터러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범주는 일차 자료(primary source) 등 이미 역사적 가치가 입증되어 보관에 들어가 전문적인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는 비현용기록에 집중되어 있다. 그에 따라 기록정보 리터러시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기록정보 리터러시를 전문가의 능력으로 명시하고 있다(Weiner, Morris, & Mykytiuk, 2015; Carini, 2016). 이러한 연구 경향성은 기록정보 리터러시가 보편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장벽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대상을 확장시키기 위해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입각하여 기존에 기록정보 리터러시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문서 리터러시를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이다. 공문서는 한 사회 내의 보편적인 함의를 구조화한 대상이며 공문서 리터러시는 현용(공공)기록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공공 리터러시의 구체적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문서 리터러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대상과 범주를 공문서 리터러시와 연결시키고 각 리터러시 간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증명하여 기록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1) 리터러시는 문식성(文識性)이나 문해력(文解力) 등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리터러시는 그 표현 자체가 문식성과 문해력을 복합적으로 함의하고, 실제로 국내 다수의 논문에서 용어 번역 없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리터러시를 번역하지 않고 원어 발음을 한국어로 표기하여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직접인용의 경우에만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준용하되 영문을 병기(竝起)하여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www.kci.go.kr

1.2 선행연구

리터러시의 개념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적 보편성으로 확장되는 반면(Ervin, 2003, 2006; 서혁, 류수경, 오은하, 김도희, 편지윤, 이소라, 2014; 서혁, 김지희, 오은하, 이소라, 2015), 기록정보 리터러시에 관련된 연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기록학 분야 다수의 연구가 기록정보 리터러시를 일반 이용자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전공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Morris, Mykytiuk, & Weiner, 2014; Weiner, Morris, & Mykytiuk, 2015). 또한 일차 자료, 즉 사료 해석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기 때문에(Yakel & Torres, 2003; Archer, Hanlon, & Levine, 2009; Carini, 2016; Enoch & Haitsma, 2015) 그 이전 단계인 현용기록에 관련된 부분은 공문서라는 이름 하에 공공 리터러시의 개념으로 다뤄지거나 그 하위 분야로 여겨졌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한계에 대해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 국문학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져왔으며, 기록학 분야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문서 리터러시를 기록학 분야의 연구 주제로 제안하여,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 둘째, 기록정보 리터러시가 전문가나 전공자의 영역에서 나아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공문서 리터러시와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조사 범주를 사학 전공자에서 공무원 등의 관련 집단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리터러시의 개념

'리터러시(literacy)'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는 문맹(illiteracy)에 대해 유표적으로 발생한 파생어이다. 리터러시에 관련된 단어는 '리터러시를 갖춘(literate)', '문맹의(illiterate)', '리터러시(literacy)', '문맹(illiteracy)' 등의 단어들이 있다. '리터러시를 갖춘(literate)'이라는 단어는 '교육받은(educated)', '배운(learned)'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로 올수록 '읽고 쓸 줄 아는'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현재에는 이 의미가 '교육받은'이나 '배운'이라는 의미보다 더 널리 통용되고 있다. 리터러시는 1924년의 사전에 최초로 등장하여 형용사 형태의 '리터러시를 갖춘(literate)'이라는 표현의 명사형으로 인식되었다. 현대에는 문화나 컴퓨터, 미디어 등 상황적 표현에 붙어 개인이 가진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의미보다 사회의 각 분야에 적용되는 맥락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리터러시와 대비되는 용어로 문맹뿐 아니라 구술성(orality)이나 언식성(oracy)이 등장한 것처럼, 리터러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함의할 수 있게 되었다(Barton, 2007, pp. 42-48).

즉 리터러시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와 같은 기초 능력에서 일상생활에의 적용 능력 등으로 확대 적용되어왔다. 정혜승(2008, pp. 162-163)은 리터러시가 어떤 용어와 함께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을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문화적 리터러시, 정치적 리터러시, 경제적 리터러시, 민주적 리터러시 등과 같이 "특정한 영역이나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

www.kci.go.kr

나 자질, 지식"이다. 둘째, 첫째 개념보다 보다 구체화되어, 컴퓨터 리터러시, 기술 리터러시, 수 리터러시같이 "대상을 조작하거나 운용하는 제한된 범위의 구체적인 능력(skill)"이다. 셋째, 기능적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와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텍스트를 비판하고,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다. 첫째 개념과 둘째 개념이 특정 분야나 상황 하의 일반적 능력이라면, 이 능력은 언어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잠재적 리터러시, 강력한 리터러시 등과 같이 "메타적으로 사용되어 문식성(literacy) 그 자체를 언급하고 지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문식성(literacy) 자체의 성격이나 구조를 지시하는 메타 용법"이다.

2.2 기록에 관련된 리터러시

2.2.1 공문서 리터러시

공공 리터러시는 공공적 목적을 가진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에 대한 구술적이고 문어적인 표현을 설명하는 능력이다. 이 개념은 공공 영역(public sphere), 공공 담화(public discourse)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공공 영역은 사람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는 지리적이거나 문맥적, 혹은 기술적인 장소 및 포럼이며, 공공 담화는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구술적, 문어적, 시각적 발화이다. 따라서 공공 리터러시는 공공 영역에서 공공 담화가 나타나는 행위양태를 의미한다(Ervin, 2003, p. 1).

그런데 공공 영역이란 완전히 통합되어 일관성 있게 존재하는 단일한 공간이 아니다. 대중의 관심사가 다르고 관심사에 따라 집단도 다양하게 나뉘기 때문이다. 대중(public)이란 개념은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없다. '대중'에 속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요소, 예컨대 공교육을 받고, 제1국어로 말하고, 뉴스를 읽고, 집 밖에서 일하고 운전할 줄 아는 등의 수많은 교집합을 하나라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교집합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Ervin, 2006, pp. 412-413).

따라서 대중의 관심사에 따라 공공 영역도 나뉜다. 공공 리터러시는 공공 영역에 따라 국가적 공공 리터러시(national public literacy), 지역적 공공 리터러시(local public literacy), 범지구적 공공 리터러시(global public literacy), 일상생활 공공 리터러시(everyday public literacy)로 나뉜다(Ervin, 2003, pp. 13-27).

이들 공공 리터러시는 이해집단들의 관심사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잘 전달하고 전달받기 위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식적 표현을 강조한다. 국가적 공공 리터러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공문서로, 한 국가의 시민이 알아야 하는 책임과 권리 및 기초적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다. 지역적 공공 리터러시는 국가적 공공 리터러시를 커뮤니티 단위로 재해석한 것으로 근본적 형태는 국가적 공공 리터러시와 동일하다. 범지구적 공공 리터러시는 국제적 활동 자체가 공공 영역이 된다. 이 국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대중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지만 각자의 소속감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국가적 대중(national public)과 지역적 대중(local public)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일상생활 공공 리터러시는 보다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이지만,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공식적 리터러시의 표현 구조를 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공공 리터러시는 근본적

www.kci.go.kr

으로 국가적 공공 리터러시에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대중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제도적・규범적 체계를 공통으로 공유하면서 생겨나는데, 그러한 제도적・규범적 체계는 주로 국가에 의거하기 때문이다(Ervin, 2006, pp. 412-413).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서혁 외(2014)는 공공 리터러시의 대상을 공적 텍스트로 명시하며 공문서를 공공기관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이들은 공공 리터러시를 "공문서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맥락에서, 소통의 주체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서혁 외, 2014, p. 128)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노명완과 이형래(2005)는 공문서 리터러시를 공무원의 직업 리터러시 중 하나로 보았는데 이 역시 공문서 리터러시를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공무원 직군의 직업 리터러시는 업무의 핵심에 '민원'이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문서처리 능력과 협의 능력에서 가장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공공 서비스가 민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업무 능력들은 국가적・지역적 공공 리터러시와 동일한 시각을 가진다. 다만 공공 리터러시가 공문서를 통한 서비스를 수용하는 입장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면 공무원 직군의 서비스는 수용하는 입장에서 나아가 효과적으로 이를 전달하고 제공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된 능력이다.

따라서 공문서 리터러시는 공공 리터러시의 표현형으로 시민이 사회적 삶을 위해 함양해야 할 리터러시이며,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무원이라는 개별 직군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전문적 직업 리터러시로 수렴된다.

2.2.2 기록정보 리터러시

기록정보 리터러시(archival literacy)는 일차자료 리터러시(primary source literacy), 아카이브에서의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for archives)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리터러시에 개념적인 근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지며(금재은, 2016, pp. 13-16), 많은 경우 정보 리터러시의 특수한 사례로 여겨지기도 한다(Vilar & Sauperl, 2014, pp. 149-159).

많은 학자들은 기록정보 리터러시를 일차 자료와 연관하여 해석하였다. Morris, Mykytiuk, Weiner(2014)는 기록정보 리터러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아카이브, 매뉴스크립트, 혹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일차 자료를 탐색, 해석,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 기술, 능력으로 정의내렸으며, Carini(2016)는 아카이브에서의 정보 리터러시를 역사적 맥락에 중점을 두어 사료(史料)로서의 일차 자료를 해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개념화했다. 왜냐하면 사료는 물리적 특성을 지님으로써 맥락이 복잡하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SAA & ACRL/RBMS(2017)는 일차 자료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을 일차 자료의 목적과 행위에 맞춰 해석했는데 해당되는 4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탐색과 이용 절차에 대한 실용적 개념이다. 둘째, 자료의 내용을 자신의 연구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적 개념이다. 셋째,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 법・프라이버시・문화적 이해・기증자의 권리・저작권・지적재산권 등의 이용 책임에 관련된 윤

www.kci.go.kr

리적 개념이다. 넷째, 기록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적 개념이다.

이렇듯 일차 자료를 기반으로 개념이 정의되는 이유는 자료 이용 목적이 연구행위로 특정되어있고 그에 따라 이용자 계층이 제한되어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차 자료 리터러시에 관련된 많은 연구는 최소한 연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Archer, Hanlon, & Levine, 2009; Weiner, Morris, & Mykytiuk, 2015) 전문 연구자와 일반 이용자를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Vilar & Sauperl, 2014).

Yakel과 Torres(2003)는 전문성을 가진 기록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User Expertise)을 3가지로 개념화하였다. 첫째, 해당 연구분야의 용어나 개념에 대한 '주제 지식(Domain Knowledge)'으로 자료의 검색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다. 둘째, 해당 전문분야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래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적 자료 해석 능력인 '인위적 리터러시(Artifactual Literacy)'이다. 셋째, 기록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록정보 탐색과 기록이용에 관한 지식인 '기록적 사고지능(Archival Intelligence)'이다.

금재은(2016)은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통해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기록정보는 일차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기록정보 리터러시가 일차 자료를 접근 및 활용하는 방식은 다른 기관과 구별되기 때문에 차별되는 활용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목적은 기록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유용성을 확장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일차 자료에 대한 반복적 경험과 지속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기록정보 리터러시 개념의 핵심은 그 대상인 '일차 자료'이다. 따라서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대상이 되는 일차 자료를 다루는 집단과 목적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특정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기능적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왔다. 하지만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전문가에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기록정보 리터러시를 익히는 것은 비판적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중요하다(Yakel, 2004, pp. 61-64).

Upward(1996)의 기록연속체 개념에 의거하면 단일 문서(document)는 누적되고 집합되어 기록물(records), 아카이브(archive), 복수의 아카이브(archives)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록이 가진 증거적 가치는 행위의 흔적에서 증거로, 조직이나 개인의 기억으로, 마침내 사회가 공유하는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로 환원된다. 이 집합적 기억은 단일한 행위의 증거가 아니라 그 행위가 담고 있는 당대의 패러다임과 문화적 함의, 내재된 사유형태를 반영한다. 따라서 기록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며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사회는 하나의 시공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연속적인 변화체이다. 사회는 개별 인간의 모임 그 이상을 함의하는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와 제도들이며, 특히 현대에 들어설수록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유동성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Giddens & Sutton, 2014, pp. 36-41).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뿐 아니라 연

www.kci.go.kr

속적인 과거의 맥락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회변화의 면면을 새로이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줘 사회를 공시적(共時的)인 관점이 아니라 통시적(通時的)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2)]

2.2.3 기록 관련 리터러시 개념 비교

기록에 관련된 리터러시인 공문서 리터러시, 공공 리터러시,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선행연구에 따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공공 리터러시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리터러시를 해석한 것으로 본다면, 기록에 관련된 리터러시는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이다. 이 두 가지 리터러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통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첫째, 2개 리터러시 모두 공공 리터러시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공문서 리터러시는 공무원의 능력,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연구자나 전문가의 능력 등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공문서 리터러시는 소통의 관점에서의 공공 리터러시를 이론적 근거로 두고 있다. 따라서 공문서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주체를 민원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기록을 통해 비판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다. 이는 기록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주관을 가지고 인식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목적적인 공공 리터러시와 기능적인 공문서 리터러시 사이를 매개하는 과도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둘째, 공문서 리터러시의 대상인 현용기록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대상인 비현용기록이 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기록의 가치 또한 현용기록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업무 활용성'과 '대내외 설명책임의무 지원'에서 비현용기록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문화 활용성'으로 확장된다. 이런 점에서 기록의 개념은 단절적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연결되어 있다.

셋째, 공문서 리터러시는 하나의 사회만 대상으로 하지만,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여러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공문서 리터러시와 공공 리터러시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이해를 추구하는 공시적 특성을 지니며, 그에 따라 사회 구조를 수용하고 합의된 체계 내에서 소통하기 위한 능력이다. 하지만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표 1〉 기록에 관련된 리터러시의 비교

	공공 리터러시	공문서 리터러시	기록정보 리터러시
분야	시민	공무원	기록 이용자 (주로 연구자 및 전문가)
리터러시의 개념 범위	특정한 분야의 자질	특정한 분야의 자질 구체적인 기술	구체적인 기술
대상	현용기록·비현용기록	현용기록	비현용기록
시간적 범주	공시적·통시적	공시적	통시적

2) 공시성(共時性)과 통시성(通時性)은 구조주의 언어학자인 소쉬르에게서 기인한 개념이다. 언어학적 바탕에서 공시성은 동일한 시점에서 개별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며, 통시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다(김종우, 2007).

www.kci.go.kr

다양한 시공간 속에 있는 여러 지역의 사회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통시적 특성을 지니며, 자신의 논리에 준거하여 사회 구조 바깥에서 사회를 분석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공문서 리터러시가 소속된 현재적 시공간까지 포괄할 수 있어 다양한 시대상에 대한 해석능력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공문서 리터러시를 포함할 수 있고, 공문서 리터러시는 기록정보 리터러시로 발전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이 연구는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관계 정립을 통해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리터러시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과 리터러시 요인 간 분석 2가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인식 차이 분석은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진 집단인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집단인 사학・문헌정보학 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지지 않은 집단으로 사학・문헌정보학 학부생을 설정한 것은 기록정보 리터러시 개념의 생소함 때문이다. 기록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록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 및 개념이 있어야 유효한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학 인접 학문을 공부하는 대학생을 선별하였다. 이들 집단 간에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 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은?

둘째, 요인 간 분석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요인을 산출하였다. 공문서 리터러시는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요인과 시민으로서의 소통 요인으로 나뉜다. 하나는 '공무원으로서의 소통'이다. 이는 공문서를 직업적 전문성에 의거하여 다루는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업무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노명완과 이형래(2005)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 요구되는 리터러시 요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의 세부 업무를 70개로 분류하였다. 이 업무들을 '언어 사용 기능'에 따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분류하고, 블룸의 인지적 사고 기능을 바탕으로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 등 6개 사고기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중복 기술하였다. 대부분의 세부 업무의 경우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능력을 요구했지만 일부 사고기능에서는 4가지 이상의 복합적 능력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표 2〉와 같았다(노명완, 이형래, 2005, pp. 73-83). 이들 문항을 바탕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요인을 개발하였다.

다른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소통'이다. 이는 Ervin(2003)의 공공 리터러시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특정한 공공적 관심사를 지닌 대중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표현

www.kci.go.kr

〈표 2〉 사고 기능에 따른 공무원의 주요 언어 행위(노명완, 이형래, 2005, pp. 73-83)

주요업무	관련 언어 행위	관련 세부 업무	세부업무의 사고기능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공문서 처리	듣기, 말하기	정보 설명하기	○	○		○	○	
인터넷 검색하기	듣기, 말하기	민원 해결 방안 협의하기	○	○	○	○	○	
인터넷 검색하기	읽기	민원인의 민원 파악하기	○	○		○	○	
인터넷 검색하기	읽기	민원 회신 자료 협의하기		○		○	○	○
기획하기	듣기, 말하기	업무 기획에 대해 협의하기		○	○	○	○	
협의하기	듣기, 말하기	문제 해결 방안 찾기	○	○		○	○	

하는 데 기반을 둔다.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 있듯, 국가적 공공 리터러시는 공문서를 통해 자신의 공공적 관심사를 표명하거나 이해한다. 이 것은 직무나 업무적 관련이 아닌, 대중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관심사에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이 집단은 국가적 규모나 혹은 지역적 규모 등 2가지로 나뉜다. 따라서 이들 개념을 반영하여 '시민으로서의 소통' 요인을 개발하였다.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분석적 개념 요인, 실용적 개념 요인, 절차적 개념 요인으로 나뉜다. 기록정보 리터러시에 관련된 가장 구체적인 연구인 Weiner, Morris, Mykytiuk(2015)의 연구를 Yakel과 Torres(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을 SAA & ACRL/RBMS에서 제시된 4개 개념을 바탕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문항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주요 문항이 도출되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Yakel과 Torres(2003)가 이용자 전문성을 나눈 3가지 기준 중 학문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전제하는 '주제 지식'과 '인위적 리터러시' 항목을 제외한 '기록적 사고 지능' 항목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남아 있는 문항 중 연구자에게 특화되거나 특정 상황에 매우 구체적이어서 개념이 복잡하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였다. 이 중 연구윤리 및 연구전문성에 관련된 이론적 개념과 윤리적 개념을 합쳐서 요인을 도출하였다. 즉 절차적 개념과 실용적 개념이 실제 연구 행위에 필요한 기록 탐색과 활용의 과정을 설명하고, 분석적 개념은 이러한 연구 행위를 바탕으로 기록의 내용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공문서 리터러시는 기록정보 리터러시와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요인들은 연관관계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각 요인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2]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구성요소간 관계는?
  - 〈연구가설1〉공무원으로서의 소통은 분석적 개념과 상관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2〉시민으로서의 소통은 분석적 개념과 상관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3〉공무원으로서의 소통은 실용적 개념과 상관을 가질 것이다.

www.kci.go.kr

〈표 3〉 선행연구의 리터러시 문항 정리

SAA & ACRL/RBMS(2017)	Yakel & Torres(2003)	Weiner, Morris, Mykytiuk(2015)	
분석적 개념	기록적 사고지능	12	일차자료를 활용하여 답해진 연구질문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것
	기록적 사고지능	14	증거로서의 일차자료 및 이자차료로부터 정보와 논거를 평가하고 합성하는 것
	기록적 사고지능	3	역사적 연구를 위해 가치를 설명하는 진짜 혹은 상상의 예시들과 소통하여 일차 자료의 가치를 명확히 설명할 것
	기록적 사고지능	15	일차자료를 활용하여 논거를 구성하는 것
실용적 개념	기록적 사고지능	23	아키비스트와 다양한 정보요구를 구술 및 서면으로 소통
	기록적 사고지능	7	기록관리기관의 웹사이트를 찾고 효과적으로 활용(검색도구 확인과 방문 전에 온라인 이용 가능 자료, 개관시간 및 정책 등 확인)
	기록적 사고지능	9	일차 자원 탐색을 위해 주요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론적 개념	기록적 사고지능	2	역사적 연구 수행에서 사용되는 일차 자료의 일반적 타입의 목록을 작성
	기록적 사고지능	1	일차, 이차, 최종 자료 사이의 명확한 차이점을 정의하고 구분
	기록적 사고지능	26	기록관리기관에서 행해지는 보호 및 보존 평가를 정당화할 이유를 소통 가능
윤리적 개념	기록적 사고지능	28	기록관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의 일반적 정책과 절차를 설명 가능(예를 들어 연구자 가입 과정, 기관에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자료의 종류, 복사 절차 등)
	기록적 사고지능	31	아무개가 어떻게 그의 작업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
	기록적 사고지능	20	신뢰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알려진 일차 및 이차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명확히 설명

- 〈연구가설4〉시민으로서의 소통은 실용적 개념과 상관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5〉공무원으로서의 소통은 절차적 개념과 상관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6〉시민으로서의 소통은 절차적 개념과 상관을 가질 것이다.

3.2 실증연구의 방법

3.2.1 설문 문항 구성 및 배포

각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인별로 문항을 선정하여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과 기댓값(중요도)을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이란 해당 항목이 자신의 현실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지에 관련된 질문으로 본인의 해당 리터러시 함양 정도나 두 리터러시 간의 연관성을 의미하며, 기댓값(중요도)이란 해당 항목의 당위적 중요성으로 현실과 상관 없이 개념 자체의 중요성에 관해 묻는 것이다. 설문 문항 구성은 〈표 4〉와 같다.

이 설문지를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광주광역시 A구 소속 공무원과, 공문서 리터러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C국립대학교의 사학과・문헌정보학과 전공생(이하 대학생)에게 2017년 4월 URL로 배포하였다.

www.kci.go.kr

〈표 4〉 리터러시별 설문 문항 구성

구분	요인(문항수)	문항	근거	질문대상
공문서 리터러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6)	• 내부 업무상 공문서의 응용과 활용 • 민원인의 입장 이해 • 업무 기획에 대해 협의하기 • 민원 회신 서류의 구성요소와 기술법 이해 • 정보 설명하기 • 민원 해결 방안 협의하기	노명완, 이형래 (2005)	• 공무원 - 인식값(본인의 리터러시 정도 측정) - 기댓값(리터러시 요소 중요도) • 대학생 - 인식값(다른 리터러시와의 연관도) - 기댓값(리터러시 요소 중요도)
	시민으로서의 소통(3)	• 공문서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관련 의견 표명 • 공문서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해 • 권한 및 허가획득 위한 공문서 활용	Ervin (2003)	
기록정보 리터러시	분석적 개념(4)	• 기록의 연구 주제 발굴 • 기록물의 가치와 해석 관점의 다양성 • 기록의 내용이 가지는 가치 파악 • 논거 증명을 위한 기록자료 활용	Weiner, Morris, Mykytiuk (2015); SAA & ACRL/RBMS (2017); Yakel, Torres (2003)	
	실용적 개념(3)	• 기록관 담당자와의 소통 • 기록관 방문 및 실물 기록 이용 절차 • 기록자료의 접근 이해		
	절차적 개념(6)	• 기록의 속성과 특성 인지 • 일차 자료와 이차 자료의 관계 • 기록의 생산 및 보존 매커니즘 이해 • 인용·복사 및 복제 등의 활용 • 기록 내용의 표절과 왜곡 방지 • 기록간 관계와 맥락 훼손 방지		

1차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공무원 84명·대학생 65명으로 총 149명이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결과 공무원 대상 77부·대학생 대상 63부로 총 140부의 설문이 분석대상자료가 되었다. 2차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공무원 3인, 대학생 2인으로 총 5인의 응답이 분석대상자료가 되었다.

3.2.2 응답자 분석

성별, 연령, 근속연수, 학부연차에 따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첫째, 공무원의 경우 성별은 거의 균등하게 나타났고, 연령은 30대(30-39세), 40대(40-49세), 20대(20-29세), 50대(50-59세) 순으로, 근속연수는 10년 이하, 11년에서 21년 사이, 21년에서 30년 사이 순으로 나타났다.[3] 연령별 분포와 근속 연수의 비율은 온라인 설문을 공무원 1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배포하였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인적 네트워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생의 경우 성별은 거의 균등하게 나타났다. 연령은 20대(20-29세)가 대부분이었다. 재학연차는 학부 3-4학년이 학부 1-2학년보다 약 3분의 2 가량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대학

3) 근속연수에서 포괄성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문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근무 개월은 버리고 연도만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년 9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연수를 20년으로 인식하여, 11년-20년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www.kci.go.kr

〈표 5〉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합계(%)
공무원	성별	남성	40	51.9	77(100)
		여성	37	48.1	
	연령	20-29세	11	14.3	77(100)
		30-39세	50	64.9	
		40-49세	12	15.6	
		50-59세	4	5.2	
	근속연수	10년 이하	61	79.2	77(100)
		11년-20년	11	14.3	
		21년-30년	4	5.2	
		31년-40년	1	1.3	
대학생	성별	남성	30	47.6	63(100)
		여성	33	52.4	
	연령	20-29세	62	98.4	63(100)
		40-49세	1	1.6	
	재학연차	학부 1-2학년	24	38.1	63(100)
		학부 3-4학년	39	61.9	

교에 재학하는 보편적 연령대가 반영된 결과이며, 재학연차는 상대적으로 수업을 통해 기록관리학 개념 인식이 있는 고학년의 응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실증분석 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요인추출을 위해서는 주성분 분석을,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상관계수를 0이 아니라고 가정하여 요인이 서로 독립되어있지 않다고 전제함으로써 사회과학에 보다 적합한 방식인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댓값(중요도) 문항으로 내용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시민으로서의 소통'에서 1개 문항, '분석적 개념'에서 1개 문항, '실용적 개념'에서 1개 문항, '절차적 개념'에서 2개 문항 등 총 5개 문항이 요인적재량이 0.6 이하로 나왔다. 이들 문항을 삭제한 후 내용타당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요인적재량과 요인별 신뢰도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각 문항 당 요인적재량은 절대값 0.765~0.935의 값을 가져 0.6을 넘겨 요인적재량 기준에 부합하였고, 모든 값이 해당되는 교차요인적재량보다 높은 값을 가졌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척도 값인 KMO(Kaiser-Meyer-Olkin) 값이 0.889로 나와 0.5를 상회하여 좋은 편으로 나왔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도 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당의 신뢰도계수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이 0.934, '시민으로서의 소통'이 0.865, '분석적 개념'이 0.860, '실용적 개념'이 0.779, '분석적 개념'이 0.829로 모두 0.7보다 높은 값을 가져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

www.kci.go.kr

〈표 6〉 요인적재량과 요인별 신뢰도계수

문항번호	내용타당성					내적일관성
	공무원으로서의 소통(JL)	시민으로서의 소통(PL)	분석적 개념 (AC)	실용적 개념 (PC)	절차적 개념 (ETC)	Cronbach's Alpha
JL1	.893	.549	-.450	.390	.277	.934
JL2	.870	.401	-.295	.277	.297	
JL3	.862	.469	-.318	.402	.346	
JL4	.853	.424	-.303	.432	.420	
JL5	.863	.381	-.393	.333	.260	
JL6	.850	.561	-.374	.369	.217	
PL1	.467	.923	-.525	.217	.308	.865
PL2	.518	.935	-.431	.307	.359	
AC1	.392	.425	-.909	.255	.450	.860
AC2	.345	.469	-.868	.318	.467	
AC3	.395	.512	-.834	.369	.530	
PC1	.410	.208	-.276	.892	.374	.779
PC2	.386	.347	-.335	.901	.414	
ETC1	.311	.270	-.461	.344	.898	.829
ETC2	.306	.377	-.588	.390	.777	
ETC3	.412	.397	-.505	.270	.765	
ETC4	.281	.338	-.328	.529	.767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8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614.064
				자유도(유의확률)		136(.00)

4.2 집단별 비교분석

4.2.1 공무원과 대학생 비교분석

공무원과 대학생의 집단간 비교를 통해 두 집단의 인식차를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값은 〈표 7〉과 같다.

공문서 리터러시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의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시민으로서의 소통', 기록정보 리터러시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의 '분석적 개념', '실용적 개념', 공문서 리터러시 기댓값(중요도)의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요인에서 공무원이 대학생보다 높은 값을 지니고 있었다. 즉 고도화된 공문서 리터러시를 갖춘 직군인 공무원들이 전문적 개념이라고 여겨지는 기록정보 리터러시를 실제 공문서 관련 업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가 무관하지 않으며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이론적 검토와 상통한다.

다만 공문서 리터러시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의 '시민으로서의 소통'에서만 유일하게 대학생이 공무원보다 높은 값을 지녔는데, 이는 전술하였듯 정치적 중립이라는 직업적 의무로 인하여 의사 표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특성이 반

www.kci.go.kr

〈표 7〉 공무원과 대학생의 집단별 비교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

집단	범주	리터러시	요인구분	집단 구분	응답 인원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확률
						f	유의확률				
소속 표본	인식값	공문서 리터러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공무원	77	.738	.392	3.894	.6861	2.802	.006**
				대학생	63			3.553	.7404		
			시민으로서의 소통	공무원	77	1.274	.261	3.292	.7493	-2.228	.028*
				대학생	63			3.603	.8760		
		기록정보 리터러시	분석적 개념	공무원	77	5.403	.022*	3.628	.7274	2.908	.004**
				대학생	63			3.302	.5671		
			실용적 개념	공무원	77	.348	.556	3.422	.9250	4.014	.000***
				대학생	63			2.794	.9186		
	기댓값	공문서 리터러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공무원	77	.007	.934	4.160	.7411	4.511	.000***
				대학생	63			3.577	.7776		

* p<0.05(t>1.96), ** p<0.01(t>2.58)

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소통'은 특정 조직에 속해 있는 공무원보다 학술적·사회참여적 측면에서 개별적 주체로 활동할 여지가 더 많은 대학생들의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이 높게 나타났다.

4.2.2 인식값과 기댓값 비교분석

동일한 요인에 대해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과 기댓값(중요도)의 평균 차이를 통해 해당 요인에 대한 평가의 특성을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공문서 리터러시 요인 2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요인 3개가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과 기댓값(중요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진 요인에는 ○표시를, 그렇지 않은 요인에는 ×표시를 하였다. 공무원 표본의 경우 '공문서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요인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대학생 표본의 경우 '기록정보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요인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공무원 표본과 대학생 표본을 함께 묶어서 분석하고, 응답자 전체는 따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8〉 대응표본 T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여부(요인별)

구분	집단별 / 요인별	공무원	대학생	응답자 전체
공문서 리터러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	×	○
	시민으로서의 소통	○	×	○
기록정보 리터러시	분석적 개념	×	○	○
	실용적 개념	×	○	○
	절차적 개념	×	○	○

www.kci.go.kr

공무원 표본과 대학생 표본에서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과 기댓값(중요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의 통계량은 〈표 9〉와 같다.

공무원과 대학생 모두 경우 유의한 차이를 가지지 않은 요인을 포함한 전체 요인에서 상관계수가 유의하다고 나왔다. 전체 요인의 상관관계가 0.318~0.730 사이로 나와 상관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표본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소통'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 평균이 3.292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보다 낮게 나타났고, 기댓값(중요도) 평균에서도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평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표본에서는 '실용적 개념'의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분석적 개념'의 기댓값(중요도)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별 비교 분석을 검정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9〉 공무원과 대학생의 인식값과 기댓값에 따른 대응표본 통계량(요인별)

표본	리터러시	요인구분	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상관계수	유의확률
공무원	공문서 리터러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인식값	77	3.894	.6861	.0782	.730	.000***
			기댓값	77	4.160	.7411	.0845		
		시민으로서의 소통	인식값	77	3.292	.7493	.0854	.560	.000***
			기댓값	77	3.675	.8877	.1012		
대학생	기록정보 리터러시	분석적 개념	인식값	63	3.302	.5671	.0714	.318	.011*
			기댓값	63	3.873	.7816	.0985		
		실용적 개념	인식값	63	2.794	.9186	.1157	.359	.004**
			기댓값	63	3.373	.8843	.1114		
		절차적 개념	인식값	63	3.544	.6561	.0827	.473	.000***
			기댓값	63	3.845	.6948	.0875		

* p<0.05, ** p<0.01

〈표 10〉 공무원과 대학생의 인식값과 기댓값에 따른 대응표본 검정(요인별)

표본	리터러시	요인구분	구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공무원	공문서 리터러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인식값-기댓값	-.2662	.5272	.0601	-.3859	-.1466	-4.431	76	.000***
		시민으로서의 소통	인식값-기댓값	-.3831	.7775	.0886	-.5596	-.2066	-4.324	76	.000***
대학생	기록정보 리터러시	분석적 개념	인식값-기댓값	-.5714	.8064	.1016	-.7745	-.3683	-5.624	62	.000***
		실용적 개념	인식값-기댓값	-.5794	1.0208	.1286	-.8364	-.3223	-4.505	62	.000***
		절차적 개념	인식값-기댓값	-.3016	.6944	.0875	-.4765	-.1267	-3.447	62	.001**

* p<0.05(t>1.96), ** p<0.01(t>2.58)

www.kci.go.kr

공무원 표본은 공문서 리터러시의 2개 요인만, 대학생 표본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3개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들 값은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에서 기댓값(중요도)을 뺀 평균차가 전부 음수를 기록하여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보다 기댓값(중요도)이 더욱 높았다.

공무원의 경우 가장 큰 격차는 대응차 평균이 -0.3831로 나타난 '시민으로서의 소통'이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였으나 대응차 평균이 -0.5794로 나타난 '실용적 개념'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공무원은 실무적 능력 외에도 비판적으로 기록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쪽에, 대학생은 지적 능력 외에 기록 이용 과정 등 실무적 차원 능력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공무원과 대학생이 서로 상보적인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공무원은 집단별 비교분석에서 유일하게 대학생이 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던 '시민으로서의 소통' 요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대학생은 인식값과 기댓값 모두 다 공무원보다 낮게 나타났던 '공무원으로서의 소통'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기록을 이용하는 절차상의 방법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 전체를 합쳐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과 기댓값(중요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의 통계량은 〈표 11〉과 같다.

응답자 전체를 합쳤을 때에는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무원 표본에서 유의미한 요인과 대학생 표본에서 유의미한 요인을 그대로 합친 결과와 동일하다. 상관계수는 모든 요인에서 0.3 이상으로 나와 비교적 상관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에서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실용적 개념'이 평균 3.139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댓값(중요도)에서 공문서 리터러시의 '공무원으로서의 소통'이 3.898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별 비교 분석을 검정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1〉 응답자 전체의 인식값과 기댓값에 따른 대응표본 통계량(요인별)

리터러시	요인구분	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상관 계수	유의 확률
공문서 리터러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인식값	140	3.740	.7286	.0616	.691	.000***
		기댓값	140	3.898	.8093	.0684		
	시민으로서의 소통	인식값	140	3.432	.8206	.0694	.565	.000***
		기댓값	140	3.664	.9085	.0768		
기록정보 리터러시	절차적 개념	인식값	140	3.481	.6777	.0573	.357	.000***
		기댓값	140	3.771	.7723	.0653		
	실용적 개념	인식값	140	3.139	.9709	.0821	.541	.000***
		기댓값	140	3.475	.8425	.0712		
	분석적 개념	인식값	140	3.582	.7225	.0611	.569	.000***
		기댓값	140	3.745	.7144	.0604		

* $p<0.05$, ** $p<0.01$

www.kci.go.kr

〈표 12〉 응답자 전체의 인식값과 기댓값에 따른 대응표본 검정(요인별)

리터러시	요인구분	구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공문서 리터러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인식값-기댓값	-.1571	.6089	.0515	-.2589	-.0554	-3.053	139	.003**
	시민으로서의 소통	인식값-기댓값	-.2321	.8100	.0685	-.3675	-.0968	-3.391	139	.001**
기록정보 리터러시	절차적 개념	인식값-기댓값	-.2905	.8261	.0698	-.4285	-.1524	-4.161	139	.000***
	실용적 개념	인식값-기댓값	-.3357	.8762	.0741	-.4821	-.1893	-4.533	139	.000***
	분석적 개념	인식값-기댓값	-.1625	.6671	.0564	-.2740	-.0510	-2.882	139	.005**

* p<0.05(t>1.96), ** p<0.01(t>2.58)

모든 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값은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에서 기댓값(중요도)을 뺀 평균차가 전부 음수를 기록하여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보다 기댓값(중요도)이 더욱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응차 평균이 가장 큰 것은 공문서 리터러시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소통'이었으며, 기록정보 리터러시에서는 '실용적 개념'이었다. 이는 각 표본을 따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였다. 즉 공문서 리터러시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소통'에 대한 필요성, 기록정보 리터러시에서는 '실용적 개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시민으로서의 소통'은 공문서를 가지고 그 의미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 리터러시지만 기록정보 리터러시와 비교적 연관이 있는 요인이고, '실용적 개념'은 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제반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정보 리터러시지만 공문서 리터러시와 연관된다. 따라서 공문서 리터러시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과 기록정보 리터러시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4.3 상관분석

추출된 요인은 공문서 리터러시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시민으로서의 소통' 2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에서 '절차적 개념', '실용적 개념', '분석적 개념' 3개로 총 5개이다. 이 변수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 값이 0.3에서 0.7 사이로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모든 리터러시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상관계수가 절대값 0.3 이상이기 때문에 약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리터러시별 내적 상관관계로는 공문서 리터러시 요인인 '공무원으로서의 소통'과 '시민으로서의 소통' 간 상관관계가 공무원 표본에서는 0.710, 대학생 표본에서는 0.493, 응답자 전체에서는 0.571로 나타났다. 또 기록정보 리터러시에서는 '분석적 개념'과 '절차적 개념'이 공무원 표본에서 0.649, 대학생 표본에서 0.632, 응답자 전체에서 0.647로 기록정보 리터러시 내에

www.kci.go.kr

〈표 13〉 요인 간 Pearson 상관계수

리터러시	요인구분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JL	PL	AC	PC	ETC
공문서 리터러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JL)	공무원	4.160	.7411	1	-	-	-	-
		대학생	3.577	.7776					
		응답자 전체	3.898	.8093					
	시민으로서의 소통(PL)	공무원	3.675	.8877	.710**	1	-	-	-
		대학생	3.651	.9403	.493**				
		응답자 전체	3.664	.9085	.571**				
기록정보 리터러시	분석적 개념 (AC)	공무원	3.688	.7596	.626**	.576**	1	-	-
		대학생	3.873	.7816	.475**	.561**			
		응답자 전체	3.771	.7723	.471**	.563**			
	실용적 개념 (PC)	공무원	3.558	.8028	.421**	.350**	.498**	1	-
		대학생	3.373	.8843	.528**	.310*	.357**		
		응답자 전체	3.475	.8425	.478**	.330**	.411**		
	절차적 개념 (ETC)	공무원	3.662	.7241	.590**	.495**	.649**	.620**	1
		대학생	3.845	.6948	.456**	.416**	.632**	.433**	
		응답자 전체	3.745	.7144	.444**	.453**	.647**	.511**	

* 0.05 수준에서 유의함,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뒤이어 '실용적 개념'과 '절차적 개념'이 공무원 표본에서 0.620, 대학생 표본에서 0.433, 응답자 전체에서 0.511이었고, 마지막으로 '분석적 개념'과 '실용적 개념'이 공무원 표본에서 0.498, 대학생 표본에서 0.357, 응답자 전체에서 0.411로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같은 리터러시 요인일 때 비교적 높은 값의 상관관계들이 나타났다. '분석적 개념'과 '절차적 개념'의 상관관계는 '실용적 개념'과 비교해봤을 때 이 두 가지 개념이 연구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표본에서 '실용적 개념'과 '절차적 개념' 사이의 연관성이 0.620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기록을 습득하는 과정인 '실용적 개념'과 기록의 내용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표현하는 '절차적 개념'의 과정이 '연구'라는 틀에서 연속적 관계임을 방증하고 있다. 즉,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진 사람들은 기록이 단순히 얻어지고 업무적으로 취해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활용되고 해석되는 과정까지가 깊게 연관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연구가설은 서로 다른 리터러시의 요인간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별로 구분된 상관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추려 재정리해보면 〈표 14〉와 같다.

먼저 공문서 리터러시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과 기록정보 리터러시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무원 표본에서는 '분석적 개념'이 0.626으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고, 대학생 표본에서는 '실용적 개념'이 0.528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응답자 전체에서는 '실용적 개념'이 0.478로 개중 가장 강

www.kci.go.kr

〈표 14〉 서로 다른 리터러시의 요인간 상관분석

요인		집단구분	Pearson 상관계수		
			기록정보 리터러시		
			분석적 개념	실용적 개념	절차적 개념
공문서 리터러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공무원	.626**	.421**	.590**
		대학생	.475**	.528**	.456**
		응답자 전체	.471**	.478**	.444**
	시민으로서의 소통	공무원	.576**	.350**	.495**
		대학생	.561**	.310*	.416**
		응답자 전체	.563**	.330**	.453**

* 0.05 수준에서 유의함, ** 0.01 수준에서 유의함

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으로서의 소통'과 기록정보 리터러시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마찬가지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무원 표본, 대학생 표본, 응답자 전체에서 모두 '분석적 개념'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공무원 표본에서는 업무적인 측면으로 공무원 직업적 전문성이 강한 '공무원으로서의 소통'과, 연구 행위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사고 능력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분석적 개념' 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표본의 응답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소통'은 실용적 개념〉분석적 개념〉절차적 개념 순서로 상관계수가 나타났던 것과 달리, 공무원 표본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소통'과 분석적 개념 〉 절차적 개념 〉 실용적 개념 등으로 상관성의 순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보편적인 인식과 달리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 공문서 리터러시가 고도화될수록, 즉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능력이 강조될수록 기록정보 리터러시가 가진 연구자로서의 핵심적 사유능력인 '분석적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문서 리터러시가 고도화되면 기록정보 리터러시 또한 고도화된다. 즉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본질적 동질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소통'에서는 모든 집단이 고르게 분석적 개념 〉 절차적 개념 〉 실용적 개념 순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으로서의 소통'이 기록의 외적 측면이 아닌 내적 측면과 연관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요인의 성질이 유사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이를 통해,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분석적 개념'은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났다. 즉 공문서 리터러시는 기록의 소재를 찾거나 자신의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2차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록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1차적인 능력과 상관성을 가진다.

4.4 추가 개방형 설문조사

1차 조사의 보완을 위해 개념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공무원 문항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www.kci.go.kr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괄성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해당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인식조사를 병행하였다. 해당 문항을 제외하면 문항은 공무원과 대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었으며, 개방형으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은 공문서 리터러시의 필요성,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필요성,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연관성 등 3가지와 공무원 집단에만 근무연차 문항을 따로 제시하였다. 응답자는 공무원 3인과 대학생 2인으로 5명이었으며, 응답자 구성은 〈표 15〉와 같다.

이들에게 추가 질문한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첫째, 공문서 리터러시의 필요성, 둘째,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필요성, 셋째, 상기 2개 리터러시의 연관성이었다. 모든 질문에서 필요성 및 연관성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은 이유를 기술해주기를 요청하여 해당 리터러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먼저 공문서 리터러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해당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별로 관점을 달리하였는데, 이를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첫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행정서비스를 요청하는 민원인의 소통, 즉 조직 내-외적 소통의 입장이다. 둘째, 공무원간의 소통, 즉 조직 내적 소통의 입장이다. 셋째, 시민으로서의 소통, 즉 조직 외적 소통의 입장이다.

첫째, 공무원과 민원인의 소통, 즉 조직 내-외적 소통으로 공문서 리터러시를 인식하고 있다. 공문서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위함이기 때문에 공문서는 민원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공문서를 작성하고 민원인에게 해독, 전달하는 역할 수행이 많기 때문(공무원 A)"이며 또한 "공문서 배포는 주요 담당 기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기는 작업 중의 하나(대학생 D)"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조직 외의 민원인과의 소통에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둘째, 공무원간의 소통, 즉 조직 내적 소통의 입장에서 공문서 리터러시를 인식한 사람들은 공문서를 정책을 반영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업무 수행의 도구로 인식한다.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이전 과정과 유사하나, 공문서 그 자체가 민원인에게 제공된다기보다 공문서의 내용이 제공된다는 데에서 입장이 달라진다.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하는 공무원으로 문서로 표현되는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업무 수행의 필수적인 요건(공무원 B)"이며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공통된 양식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이기 때문(공무원 C)"이다.

〈표 15〉 추가 개방형 설문조사 응답자

성명(익명표시)	직군	성별	근무(재학)연차
A	공무원	여성	10년 이하
B	공무원	남성	10년 이하
C	공무원	남성	10년 이하
D	대학생	여성	고학년(3~4학년)
E	대학생	여성	저학년(1~2학년)

www.kci.go.kr

하지만 조직 내·외 소통과 내적인 소통이 완전히 구분된다고는 볼 수 없다. 국가의 기조를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자체가 통합적으로 연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공문서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공무원으로서의 소통'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셋째, 시민으로서의 소통, 즉 조직 외적인 입장이다. 대학생의 경우 민원인 및 시민의 입장에서 복합적으로 그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 응답자는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공문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비판적인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대학생 E)"고 응답하였는데, 이런 관점은 '시민으로서의 소통'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이다.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또한 있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입장은 삶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기록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체로서의 사회를 반영하고 그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응답자들은 기록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기록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드러내는 전문 인력에 있어서의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강조되었다. "기록이 훗날 전해져 역사적 가치를 가질 때 그 기록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그 기록이 가진 가치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일(대학생 E)"에의 필요성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서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관리자의 가치인식도 중요(대학생 D)"하다고 언급되었다.

응답자 D가 언급한 정보인식자의 가치 확립은 기록연구사의 기록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소명의식을 함의한다. 응답자들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기록이 사회를 담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록과 사회의 상보적인 역할을 방증한다. 즉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가치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공시적·통시적인 입장을 모두 가진다. 한 응답자는 이처럼 공시적 입장("오랜 기간 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문서(공무원 B)")과 통시적 입장("역사상 어느 시점에 분명한 가치를 가진 문서(공무원 B)") 모두에서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문서라는 뜻인지, 역사상 어느 시점에 분명한 가치를 가진 문서인지 불분명하나 두 가지의 경우 모두 현재의 인간이해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서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공무원 B)"

반면 공무원의 업무적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는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었다. 기록정보 리터러시가 공무원의 업무에 필요하다는 입장("일제시대 호적등본과 같이 오래된 서류를 접하고 해독해야할 일이 많으며, 한자, 옛 지명, 옛 행정용어를 현재화시킬 일이 많다(공무원 A)")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해당 업무가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www.kci.go.kr

(공무원 C)")이었다. 이는 기록정보 리터러시를 과거의 기록을 해석해 그 내용을 이해하는 '절차적 개념'의 맥락에서 인식한 것이다.

한편, 모든 응답자가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공통점으로 인해 유사성을 지적한 답변과, 그 성질 및 목적성의 경향성에서 관련성을 지적한 답변 2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기능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리터러시 개념의 본질에 관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응답자는 "둘 다 독해력이 필요하기 때문(공무원 C)"이라고 직관적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독해력은 리터러시 자체의 개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기록에 관련된 리터러시가 결과적으로는 리터러시의 본질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문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글자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문맥과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것(공무원 B)"처럼, 리터러시의 범위는 글자나 어휘에 대한 인식과 수용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간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즉 공문서 리터러시가 내포하는 국가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역사적 배경 등은 공통적으로 기록이 담고 있는 사회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사회적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으로 환원될 수 있다.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성질 및 목적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 리터러시의 대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공문서 리터러시의 대상인 현용기록이 비현용기록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을 양쪽 집단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서의 많은 부분을 공문서가 차지하고 있다(공무원 A)"는 점과 "공문서 중에서도 후에 역사적인 가치가 큰 문서가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두 능력을 고루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대학생 E)"

공문서 리터러시의 대상이 되는 기록과,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대상이 되는 기록은 교집합을 가진다. 이는 이용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그러하며 나아가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이 서로 연속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서들(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이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일종의 호환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의 가치를 증명할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록)자료가 될 수 있다.(대학생 D)"

이를 종합하자면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각각 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기록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해석하는 두 가지 리터러시는 동질성을 지닌다. 나아가 기록이 담고 있는 것이 결국 인간 행위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사회를 읽어내는 능력으로서의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연결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5. 결 론

이 연구는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리터러시인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

www.kci.go.kr

시의 개념과 함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각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관계를 실증하여 공문서 리터러시가 기록정보 리터러시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증명코자 했다. 이 연구의 이론적 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문서 리터러시는 공공 리터러시의 표현형으로 공무원 등 관련 직업 리터러시로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공문서를 행정적 처리 대상이 아니라 공공적 관심사를 발굴하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매개로 여김에 따라, 공문서를 토대로 소통하는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공문서 리터러시의 요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시민으로서의 소통' 등 2가지로 나뉘어졌다.

둘째,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일차 자료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위한 리터러시로 정의되어왔다. 하지만 기록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기록을 매개로 다양한 시공간 속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비판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공문서 리터러시의 요인은 '분석적 개념', '실용적 개념', '절차적 개념' 등 3가지로 나뉘어졌다.

셋째,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특정 집단의 능력에서 공공적 능력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둘 다 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공문서 리터러시는 현용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비현용기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록의 가치가 현용기록에서 비현용기록으로 넘어감에 따라 속해있는 시공간만을 고려하는 공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시공간을 이해하는 통시적 관점으로 확장됨에 따라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는 연속적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증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표본과 그렇지 않은 집단인 사학·문헌정보학 전공 학부생 집단을 대상로 각 리터러시별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과 기댓값(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지면 기록정보 리터러시 또한 습득한다. 집단별 비교에서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진 공무원이 대학생보다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 양측에서 전반적으로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이 더욱 높았다. 또한 상관분석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소통' 요인과 '분석적 개념'의 상관성을 다른 요인보다 높게 평가했다. '분석적 개념'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다른 요인들과 달리 기록을 찾거나 연구수단으로 사용하는 2차적 활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득하는 1차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공문서를 다루면 다룰수록 기록에 대한 개념 또한 동시에 상승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분석적 능력도 상승한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둘째,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소통'과 '실용적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인식값(현실 반영 정도)과 기댓값(중요도)의 대응차는 '시민으로서의 소통'과 '실용적 개념'이 가장 컸다. 즉 이 2가지 요인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런데 '시민으로서의 소통'은 공무원들이 부족한 것이었고, '실용적 개념'은 대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었다.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진 집단을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소통'

www.kci.go.kr

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을 위해서는 '실용적 개념'을 강화함으로써 두 리터러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분석의 미비함이다. 연구 집단 2개가 각각 공무원 77명, 대학생 63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된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기록정보 리터러시 요인이 상대적으로 전공자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 유의한 값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 편의적 표본추출로 인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요인의 개발이다. 해당 관점에서 공문서 리터러시 및 기록정보 리터러시를 조망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요소를 추출하여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론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다수 발생하였다. 해당 관점에서 첫 번째 한계점과 마찬가지로 공문서 리터러시에 대한 요인 개발과,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기록정보 리터러시 요인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시킨 실증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론적 근간의 확대이다.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리터러시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리터러시가 쓰여 진 것으로서의 문(文)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기록과 리터러시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 리터러시의 대상으로서의 기록과, 기록의 능력으로서의 리터러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선행연구가 진행되어야 공문서 리터러시와 기록정보 리터러시의 관계가 보다 이론적 신뢰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진 집단인 공무원 집단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 집단보다 기록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록을 많이 다룰수록 그 중요성을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에 상관없이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문서 리터러시를 가지지 않은 집단은 기록을 이용하는 절차나 그 외적 요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편으로 기록정보 리터러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문서 리터러시에 관한 습득이 일정부분 선행되어야 한다.

공문서는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증명하는 가장 제도화된 방법이다. 따라서 공문서 리터러시가 발전되면 개인의 사회화, 개인의 사회 인식을 포함하며 이것이 기록정보 리터러시로 치환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문서 리터러시에 대한 보다 밀접한 구체화,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해야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 능력으로 인식되는 현용기록에 대한 이해를 비현용기록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키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금재은 (2016). 기록정보 리터러시(Archival Literacy)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김종우 (2007). 구조주의와 그 이후. 파주: 살림.

노명완, 이형래 (2005). 직업 문식성 연구 - 9, 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3, 62-100.

서혁, 김지희, 오은하, 이소라 (2015). 시선 추적 장치를 활용한 공무원과 일반인의 공문서 읽기 특성 비교 연구. 새국어교육, 102, 7-44.

서혁, 류수경, 오은하, 김도희, 편지윤, 이소라 (2014). 공공 문식성 제고를 위한 공문서 텍스트의 평가와 분석. 새국어교육, 98, 119-152.

정혜승 (2008). 문식성 교육의 쟁점 탐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1(1), 161-185.

Barton, D. (2007). Literacy: An introduce to the Eology of Written Language. (2nd ed.). 김영란, 옥현진, 서수현 공역. (2014). 문식성: 문자 언어 생태학 개론.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Archer, J., Hanlon, A. M., & Levine, J. A. (2009). Investigating primary source literac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5(5), 410-420. https://doi.org/10.1016/j.acalib.2009.06.017

Carini, P. (2016). Information literacy for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Defining outcomes.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16(1), 193-208. https://doi.org/10.1353/pla.2016.0006

Enoch, J., & Van Haitsma, P. (2015). Archival literary: Reading the rhetoric of digital archives in the undergraduate classroom.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67(2), 216-242.

Ervin, E. (2003). Public Literacy. (2nd ed.). New York: Longman.

Ervin, E. (2006). Teaching public literacy: The partisanship problem. College English, 68(4), 407-421. https://doi.org/10.2307/25472161

Morris, S. L., Mykytiuk, L. J., & Weiner, S. A. (2014). Archival literacy for history students: Identifying faculty expectations of archival research skills. The American Archivist, 77(2), 394-424. https://doi.org/10.17723/aarc.77.2.j270637g8q11p460

SAA & ACRL/RBMS. (2017, March 30). Guidelines for primary source literacy: Draft for feedback - 1/13/17. Retrieved from http://www2.archivists.org/sites/all/files/Primary%20Source%20Literacy%20Guidelines%20-%202nd%20Draft%20for%20Public%20Comment.pdf

Upward, F.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Series of two parts) Part 1: Post 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Archives and Manuscripts, 24(2), 268-285.

www.kci.go.kr

Vilar, P., & Sauperl, A. (2014). Archival literacy: Different users different information needs behaviour and skills. Communications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492, 149-159. https://doi.org/10.1007/978-3-319-14136-7_16

Weiner, S. A., Morris, S. L., & Mykytiuk, L. J. (2015). Archival literacy competencies for undergraduate history majors. The American Archivist, 78(1), 154-180. https://doi.org/10.17723/0360-9081.78.1.154

Yakel, E. (2004). Information literacy for primary sources. OCLC Systems & Services: International Digital Library Perspectives, 20(2), 61-64.

Yakel, E., & Torres, D. A. (2003). AI: Archival intelligence and user expertise. The American Archivist, 66, 51-78. https://doi.org/10.17723/aarc.66.1.q022h85pn51n5800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ung, Hye-Seung (2008). A study on issues of literacy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1(1), 161-185.

Geum, Jae-Eun (2016). A study on education services to enhance archival liter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Kim, Jong-Woo (2007). Structuralism and past. Paju: Sallim.

Noh, Myeong-Wan & Lee, Hyeong-Rae (2005). A study of job literac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3, 62-100.

Suh, Hyuk, Kim, Ji-Hee, Oh, Eun-Ha, & Lee, Sora (2015). A experimental study using the eye-tracker on reading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officials and the ordinary adults. Korean Education, 102, 7-44.

Suh, Hyuk, Ryu, Sukyeong, Oh, Eun-Ha, Kim, Dohee, Pyeon, Jiyun, & Lee, Sora (2014). The assessments and analyses of Korean official documents focused on public literacy. Korean Education, 98, 119-152.

www.kci.go.kr